

## 유라초에서 즐기는 다이빙과 스노클링

시라사키 해안에는 다양한 다이빙 명소가 있습니다.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수중동굴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이빙 명소에 해변에서 입수하는 비치 엔트리와 배에서 입수하는 보트 엔트리 모두 가능하며, 다이빙뿐만 아니라 스노클링에 적합한 곳도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부터 베테랑 дай버까지 모든 수준에 맞는 패키지, 트레이닝, 스노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라사키 수중동굴에는 다이버가 부상할 수 있는 에어돔이 있으며, 동굴 천장에서 빛줄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서는 빛이 한 줄기로 보이거나, 빛의 커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고저 차가 23m에 이르는 드롭오프(급경사면) 중간에 있는 좁은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이버가 1명씩 바닷속 터널에 들어가 좁은 공간을 10m 정도 나아가면 동굴 안에 도착합니다. 빛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다이빙 라이트 없이도 시야가 확보되지만, 그늘에 숨어있는 곰치, 닭새우, 그 외의 해양생물을 찾아볼 때는 다이빙 라이트가 있으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시라사키 수중동굴은 50회 이상의 다이빙 경험이 있는 상급 다이버를 위한 보트 엔트리 다이빙 명소입니다.

이 외에 하부가타(보트 엔트리)와 야쿠시노하마(비치 엔트리) 등의 다이빙 명소도 있습니다. 모두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10m 정도로 수준에 관계없이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부가타’에는 말미잘이 군생하고 있으며, 자리돔과 흰동가리, 게다가 클리어 클리너 슈림프(*Clear cleaner shrimp*), 선명한 무늬를 가진 갯민숭달팽이, 할리퀸 유령실고기 등 작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얀 해안과 푸른 바다의 대비가 아름다운 ‘야쿠시노하마’에서는 시라사키 해양공원 동쪽 주변의 수중세계를 즐기거나, 석회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회암 채굴장 터, 그리고 파랑돔과 고운 빛깔의 놀래기, 옐로노즈 프론 고비(*Yellownose prawn-goby*), 후악치 같은 다종다양한 해양생물 등의 볼거리가 풍부합니다.